한국무용과학회지, 2026, 제43권 제4호, pp.55~70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26, Vol.43, No.4 pp.55~70
1229-7836/26/719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26.43.4.55

미디어에 담긴 한국 발레 주제 변화 분석

김태연* 한양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국내 미디어에 나타난 발레의 사회적 의미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빅카인즈(Big KINDS)와 조선일보 기사 아카이브에서 수집, 정제한 발레 관련 뉴스기사 13,036건이며, 분석 시기는 제1기(1980~1995년), 제2기(1996~2005년), 제3기(2006~2015년), 제4기(2016~2025년)로 구분하였다.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추출한 토큰에 지정어, 유의어, 제외어 사전을 적용하여 불용어와 검색어 자체를 제거한 뒤 TF-IDF를 활용해 문서 전반에 반복되는 상투어를 추가로 제거하였다. 이후 정제된 토큰에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시기별 주요 토픽과 키워드 분포를 도출하고, 토픽-키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해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제1기는 창작 기반 형성과 국제 교류, 제2기는 공연시장과 관객 확대, 제3기는 국제 교류와 공연 확대, 제4기는 지역, 공공문화와 대중문화의 확장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발레 관련 미디어 담론은 해외 발레의 수용과 국내 기반 형성에서 전문 발레단과 공연시장의 성장, 한국 무용수의 국제적 성취,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지역, 디지털 영역으로의 확장을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는 장기간 축적된 뉴스 자료를 통해 한국 발레의 사회적 의미와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한국 발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요어 : 발레, 빅데이터, 토픽모델링, 미디어 담론, 사회적 변화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레는 공연장을 넘어 일상 속 문화예술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취미로 발레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른바 '취발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성인 취미 발레가 확산되고 있으며, 발레를 배우고 경험하는 연령층도 어린이와 청년에서 중장년 및 시니어 세대로 넓어지고 있다. "손녀딸도 할머니도 토슈즈 신었다. 일상 파고든 '취발러'라는 보도의 제목(남정미, 2026.01.05.)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발레가 전문 무용수와 전공자, 일부 관객을 중심으로 향유되는 고급예술로 인식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일반인이 직접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표현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성인 취미 발레 참여자의 경험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재생산되면서 발레에 대한 접근성과 대중적 관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은진, 2021; 임하린, 2026).

이러한 변화는 패션과 일상적 소비문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호현지(2018)는 발레 의상의 요소가 현대패션에 차용되면서 여성성과 우아함을 표현하는 요소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미학적 특성이 '발레코어'와 같은 패션 트렌드로 확장되면서 발레의 이미지가 개인의 미적 취향과 자기표현을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발레의 대중적 확장이 단순한 관객층이나 참여자의 증가에 국한되지 않고, 발레를 향

* 한양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강사, ballet9490@naver.com

유하는 방식과 그에 부여되는 문화적 의미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대중적 확장과 동시에 한국 발레는 국제적인 전문예술 영역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국 발레는 20세기 초 서구문화의 유입과 함께 러시아와 일본을 통해 도입되어 1950~60년대 교육과정을 통해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1960~70년대 대학과 발레단이 설립되면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박은혜, 2018). 이후 해외 경험을 가진 교육자와 전문교육기관을 기반으로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다(제임스 전, 김지연, 2008; 박효선, 2024). 초기에는 외래문화로 수용되었던 발레가 교육과 창작, 전문 발레단의 활동을 통해 국내 예술문화의 한 영역으로 정착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장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수진과 박세은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한 한국 발레 무용수들의 뒤를 이어 젊은 세대의 국제적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적인 발레 콩쿠르인 스위스 로잔발레콩쿠르(Prix de Lausanne)에서 박윤재가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하였으며(임요희, 2025.02.10.), 2026년에는 참가자 78명 가운데 19명이 한국인이었고 한국 무용수 5명이 수상한 것이 보도 되었다(박가영, 2026.02.08.).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발레가 더 이상 해외 발레를 수용하고 학습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전문예술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문화적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K-pop, K- movie, 드라마 등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한국은 문화를 수용하는 국가에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문화국가로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발레 역시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와는 다른 영역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 사례로 꼽힌다. 정부에서도 '문화로 행복한 사회, K-culture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 강국'을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홍보영, 2024). 따라서 한국 무용수들의 국제적 성취는 개인의 성공에 한정하기보다 한국 발레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기반의 축적으로부터 나타난 문화적 성과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발레는 전문성과 대중성, 국내성과 국제성이 교차하는 복합적 문화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향유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발레의 현재와 향후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장기간 축적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법은 이러한 한국 발레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이정민, 2017; 이예슬, 2019). 특히 뉴스 미디어는 시대별 주요 사건과 인물, 문화현상을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무용 관련 뉴스 자료는 단순한 공연정보를 넘어 당대 사회가 무용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이예슬, 2019; 조하나, 2022), 이를 통해 발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미의 변화를 한 눈에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무용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인식과 시대적 변화를 분석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의 인식변화 연구(손재현, 2017; 현보람, 2021), 국내 무용과 현대무용 관련 연구 및 보도 경향 분석(김하연, 이해준, 2020; 이예슬, 2019), 무용공연관람 인식과 무용의 정책적 기능 및 현황 분석(이예슬, 박종화, 2020; 이용건, 최형철, 2020), 빅데이터를 이용한 코로나19 전후 무용 트렌드 분석(최재일, 최영철, 2021),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생활무용 연구의 지식구조 분석(이예슬, 한혜원, 연은정, 2021)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연구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전통무용 미디어 담론 분석(조하나, 2022), 코로나 이후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활용 연구(조남규, 김혜림, 2022), 무용 작품분석 연구동향 분석(김태연, 이윤경, 2023), 전통무용 이슈 분석(이한별, 2023), 국내 스트릿댄스 관련 트렌드 분석(최종환, 2023),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무용의 비대면화와 사회적 인식변화 연구(장유정, 2023), 국내 언론의 무용공연 보도 특성 분석(이윤경, 김태연, 2024), 무용공연 트렌드와 사회적 관심(조윤정, 2024) 등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무용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스트릿댄스, 무용공연, 한국전통무용, 트렌드, 현대무용 및 무용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공연 관람 등 그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무용과 한국전통무용의 경우 연구자료와 뉴스자료를 활용하여 장르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려는 연구와 무용공연 전반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뉴스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규모 미디어 자료를 통해 무용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의미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 발레 연구는 성인발레 참여, 대중화, 제도화 및 국제적 성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강승희, 2010; 강아록, 2019; 김은진, 2021; 박효선, 2024; 박은혜, 2018; 임하린, 2026), 발레를 독립적인 장르로 설정하여 장기간의 미디어 자료를 통해 발레 관련 시대별 주제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장기간 축적된 국내 발레 관련 뉴스자료를 대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미디어에 담긴 발레 관련 시대별 주제 변화 양상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발레의 전문적 성장과 대중적 확장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여 관련 정책과 현장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발레의 대중적 확장과 전문 예술의 성장 및 국제적 성취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형성해 왔는지를 살피고, 한국 사회에서 발레의 문화적 변화와 가치를 이해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8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미디어에 나타난 발레 관련 뉴스기사이다. 분석자료는 BIG KINDS에서 '발레'를 검색어로 수집한 뉴스기사와 초기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1980~1990년 조선일보 기사 아카이브 자료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중복기사를 제거한 13,644건 중 검색어 오염 및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서 584건을 제외하여 13,060건을 정제하였으며, 이 가운데 토큰 수 기준을 충족한 최종 13,036건을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뉴스 기사에 나타난 발레의 사회적 담론과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미디어에 나타난 발레 관련 사회적 담론의 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분석 기간을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시기 구분은 한국 발레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확정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뉴스자료의 축적 특성과 시기별 담론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장기간 축적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무용 관련 보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텍스트 분석에서는 연구 목적과 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 설계 및 해석의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고려하였다(김남희, 2018; 남수정, 2005; 박종화, 2019; 이예슬, 2019). 전체 기간은 제1기(1980~1995년), 제2기(1996~2005년), 제3기(2006~2015년), 제4기(2016~2025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기(1980~1995년)는 초기 발레 관련 뉴스자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하였다. 제1기의 최종 분석 기사는 709건으로, 이후 시기에 비해 자료의 규모가 적게 나타났다. 이에 초기 시기를 세분화하기보다 하나의 분석 구간으로 설정하여 해외 발레의 수용과 국내 창작, 교육 및 전문단체의 기반 형성 등 초기 미디어 담론의 주요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2기(1996~2005년)부터는 장기적인 담론 변화의 비교 가능성과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제3기(2006~2015년), 제4기(2016~2025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기 구분은 특정 연도를 한국 발레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기별 주요 담론의 구조와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조작적 분석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각 시기의 구분과 정제 후 기사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4기 시기별 최종 분석 기사 수

시기	최종 분석 기사 수
1기(1980~1995)	709
2기(1996~2005)	1958
3기(2006~2015)	4746
4기(2016~2025)	5623

2. 데이터 정제

분석에는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추출한 정제 토큰을 사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지정어, 유의어, 제외어 사전을 적용하였다. 지정어는 `유아발레`, `성인발레`, `시니어발레`, `창작발레`, `클래식발레`, `모던발레`, `컨템포러리발레`, `콩쿠르`, `발레단` 등을 포함하였다.

유의어 처리는 `취미발레→성인발레`, `고전발레→클래식발레`, `콩쿨→콩쿠르`와 같이 동일 의미의 표현을 하나의 대표어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석 이후 한 글자 토큰, 일반 불용어, 검색어 자체인 `발레`를 제외하였다. 이후 TF-IDF 기반 상투어 제거를 적용하여 전체 문서에 과도하게 분포하는 일반어를 추가로 제거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keywords_filtered` 컬럼의 정제 토큰을 사용하였다. 이때 TF-IDF는 LDA의 입력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전체 문서에 널리 분포하는 일반적 표현을 식별·제거하는 전처리 단계에 사용하였다. LDA에는 이 과정을 거친 정제 토큰을 입력하였다.

3. 토픽모델링 분석 및 점유율 산출

시기별 LDA 토픽 수는 제1기 7개, 제2기 5개, 제3기 6개, 제4기 8개로 설정하였다. 각 시기의 상위 키워드와 주제 구분의 명확성, 토픽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픽 수를 결정한 것으로 기술하되, 실제 선정 과정에서 비교한 후보 토픽 수 및 일관성(coherence) 지표의 사용 여부는 원 분석 기록과 대조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

토픽 점유율은 각 시기에 도출된 토픽의 상대적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다만 본 원고에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는 문서별 최우세 토픽의 기사 건수를 집계한 방식인지, 문서별 토픽 확률을 합산·정규화한 방식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4. 네트워크 분석방법

토픽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기수별 토픽-키워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네트워크에서 파란 사각형 노드는 토픽을 의미하고, 붉은 원형 노드는 해당 토픽의 상위 키워드를 의미한다. 토픽과 키워드 사이의 링크는 LDA 모델에서 산출된 키워드 확률값 `p(word|topic)`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연결선의 두께는 키워드 확률값에 비례하도록 설정하였다. 동일 키워드가 복수 토픽의 상위 단어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를 여러 토픽에 동시에 연결하였다. 네트워크 엣지 데이터는 별도 엑셀 파일로 저장하였다.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미디어에 나타난 발레의 사회적 의미와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기는 제1기(1980~1995년), 제2기(1996~2005년), 제3기(2006~2015년), 제4기(2016~2025년)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에 도출된 토픽은 〈표 2〉와 같이 점유율이 높은 순서로 정리하였으며, 〈그림 5, 6〉을 통해 시기별 토픽의 건수와 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토픽 점유율의 정확한 산출 절차는 분석 당시 저장한 문서별 토픽 할당값 또는 확률값에 근거하여 확인해야 하며, 점유율의 정의는 〈표 2〉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표 2. 시기별 토픽모델링 결과

시기	토픽	점유율(%)	키워드(상위 10개)
1기 (1980~1995)	창작,기반 형성	18.74	교수, 무용, 국립, 창작발레, 안무, 발표회, 회관, 기념, 창단, 하오[1)]
	국제 교류	18.41	광주, 국제, 콩쿠르, 세계, 무용, 러시아, 참가, 페스티벌, 회관, 무용단
	전문 발레단 형성	17.28	무용, 무용수, 창단, 러시아, 단장, 시어터, 현대, 국립, 단체, 무용가
	해외 발레 수용	14.17	볼쇼이, 소련, 현대, 세종문화회관, 내한, 강당, 안무, 학교, 국내, 클래식발레
	고전 발레 수용	11.68	호두까기, 인형, 세계, 백조, 국립, 클래식발레, 호수, 러시아, 합창, 사랑
	발레 공연 확산	10.43	호수, 백조, 지젤, 심청, 세계, 내한, 환상, 진수, 출연, 클래식발레
	교육, 협회 활동	9.29	국립, 합동, 전국, 내한, 연습, 협회, 대상, 교수, 연수회, 콩쿠르
2기 (1996~2005)	공연시장 확대	30.47	회관, 무용, 광주, 호수, 러시아, 클래식발레, 현대, 무용단, 창작발레, 문예
	해설 발레, 관객확대	26.15	해설, 국립, 무용, 모던발레, 관객, 단장, 돈키호테, 시어터, 음악, 창작발레
	해외문화 교류	15.79	세계, 오페라, 스타, 아이스, 내한, 무용수, 영화, 예술의전당, 러시아, 교실
	스타무용수,해외진출	14.71	스타, 무용수, 미국, 세계, 국내, 김지영, 김용걸, 국립, 파리, 강수진
	국제콩쿠르 수상	12.88	콩쿠르, 국제, 무용, 인형, 호두까기, 부문, 수상, 무용수, 대회, 세계
3기 (2006~2015)	국제 콩쿠르, 교류	24.45	발레단, 무용, 콩쿠르, 국제, 세계, 지젤, 러시아, 광주, 부문, 현대
	공연, 관객 확대	23.75	발레단, 회관, 이야기, 시어터, 해설, 창작발레, 돈키호테, 관객, 공연장, 축제
	스타무용수,국제활동	19.25	발레단, 무용수, 강수진, 발레리나, 오페라, 세계, 수석, 크루즈, 스타, 미국
	가족, 어린이 발레	11.83	인형, 호두까기, 어린이, 호수, 화보, 동화, 가족, 크리스마스, 뮤지컬, 연말
	발레, 미디어 확장	11.08	공개, 배우, 방송, 포기, 출연, 박현선, 스타, 박효주, 발레리나, 화제
	신체관리	9.64	스테파니, 공개, 강소라, 방송, 몸매, 스트레칭, 슈퍼맨, 다리, 동작, 모습
4기 (2016~2025)	지역, 공공문화	24.15	발레단, 회관, 개최, 무용, 지역, 재단, 사업, 해설, 창작발레, 대표
	발레 레퍼토리	16.62	발레단, 호수, 지젤, 백조, 장학, 클래식발레, 예술의전당, 재단, 안무가, 창작발레
	국제적 한국무용수	13.79	발레단, 무용수, 오페라, 파리, 세계, 수석, 스타, 러시아, 발레리나, 박세은
	지역축제, 콩쿠르	11.77	축제, 수원, 대한민국, 발레단, 국제, 콩쿠르, 무용, 올해, 부문, 예술의전당
	드라마,대중문화	10.45	인형, 호두까기, 나빌레라, 공개, 사랑, 박인환, 드라마, 송강, 방송, 배우
	발레리나 이미지	10.01	별세, 공개, 포르쉐, 모습, 자신, 동작, 발레리나, 미국, 배우, 방송
	코로나,공연서비스	8.26	경기, 오페라, 음악, 서비스, 코로나, 오케스트라, 학원, 클래식, 개최, 충북
	국제콩쿠르, 성과	4.95	로잔, 러시아, 콩쿠르, 박윤, 우승, 시간, 현지, 스위스, 발레리노, 최초

1) 1기(1980~1995)에서 '하오(下午)'는 '오후'를 뜻하는 시간 표현으로, 원기사의 공연, 행사 시각 안내에서 추출

1) 제1기(1980~1995년) 토픽모델링

제1기(~1995년) 토픽-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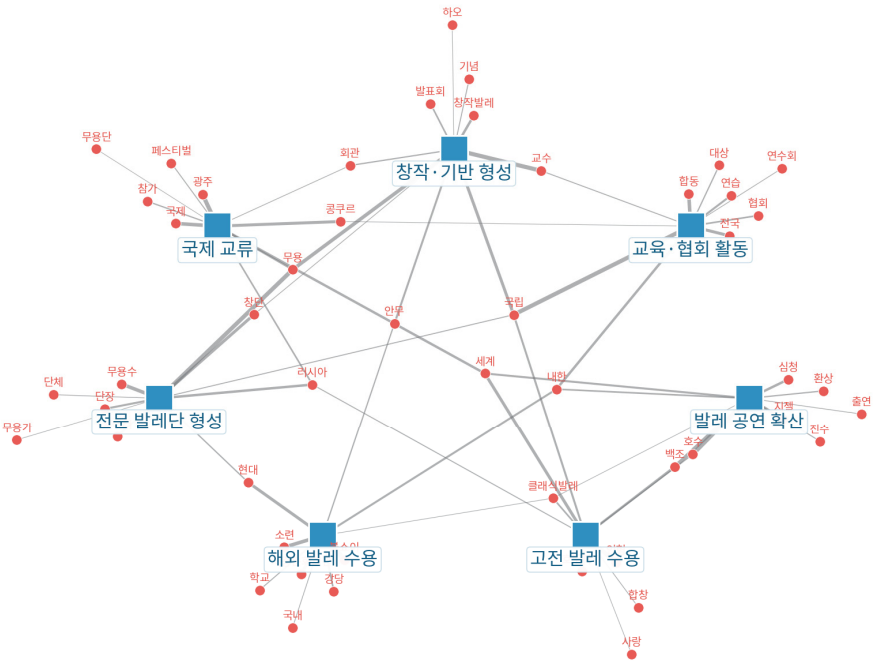


그림 1. 토픽 모델링 시각화 산출물

제1기에 나타난 토픽은 〈그림 1〉과 같다. 총 709건의 기사에서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별 점유율은 '창작, 기반 형성'이 18.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제 교류' 18.41%, '전문발레단 형성' 17.28%, '해외 발레 수용' 14.17%, '고전 발레 수용' 11.68%, '발레 공연 확산' 10.43%, '교육, 협회 활동' 9.29%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의 결과는 한국 발레가 해외 발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국내 창작과 교육, 전문단체의 기반을 형성해 가던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다. '러시아', '소련', '볼쇼이', '내한' 등의 키워드는 당시 해외 발레단과 고전 레퍼토리의 국내 유입에 대한 한국 발레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주요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국립', '창단', '창작발레', '안무', '교수' 은 국내에서 발레를 제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국 발레의 교육 체계의 구축과 함께 발전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박은혜(2018)는 1988년 이후 안무가에 대한 관심도와 콩쿠르 입상, 전문 발레단 활동 등 전문 경력의 중요성으로 발레 예술가의 위치가 견고해지며 중요한 상징 자본으로 부상했다고 보고하였다. 김하연과 이해준(2020)도 1990년대 무용 분야에서 서구 예술 경향의 수용과 국내 작품 및 연구 기반의 확대가 함께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러한 과정을 간접 설명해 주고 있다. 1988~1998년 한·러 발레 문화교류를 분석한 백지혜(2025)도 당시 러시아 발레단의 한국 공연이 한국 대중의 발레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러시아 예술가와의 교류가 한국 발레단의 기술적 수준과 전문성을 향상시켰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한국으로 바가노바의 러시아식 발레 교육 시스템 도입의 시초가 되었다고 유추되며, 한국의 전문적인 발레교육 체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95년 이전의 제1기 한국발레는 해외 발레의 소개와 수용이 국내 발레의 창작, 교육, 조직 기반 형성과 맞물리며 그간 소수의 전문예술가가 향유하는 고급예술로 인식되어 오던 한국 발레가 전문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예술로서 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1995년 발레의 창작과 대중화를 전면에 내세운 민간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가 창단되면서 클래식 중심의 한국 발레계에서 대중발레와 창작 발레라는 새로운 문화적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한국 발레 지형의 변화가 시작(손정아, 하웅용, 2017)되며, 언론 담론에서 해외 교류와 국내 기반 형성이 동시에 가시화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창작 기반 형성과 전문 발레단 형성 토픽이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발레가 공연 레퍼토리를 수입, 소개하는 단계에서 국내의 창작 주체와 지속적인 제작 조직을 확보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발레의 제도적 정착이 공연 횟수의 증가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와 무용수의 양성, 전문단체의 조직, 창작 작품의 생산이 결합되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1기는 해외 발레의 수용과 국내 예술생산 기반 구축이 상호작용한 형성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구축된 기반은 이후 공연시장 확대와 스타 무용수의 국제 진출이 미디어의 주요 담론으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이로부터 본격적인 전문 발레단의 성장과 공연 활동의 확대 발전이 이루어지는 제2기의 토대가 되었다고 사료 된다.

2) 제2기(1996~2005년) 토픽모델링

제2기(1996~2005년) 토픽-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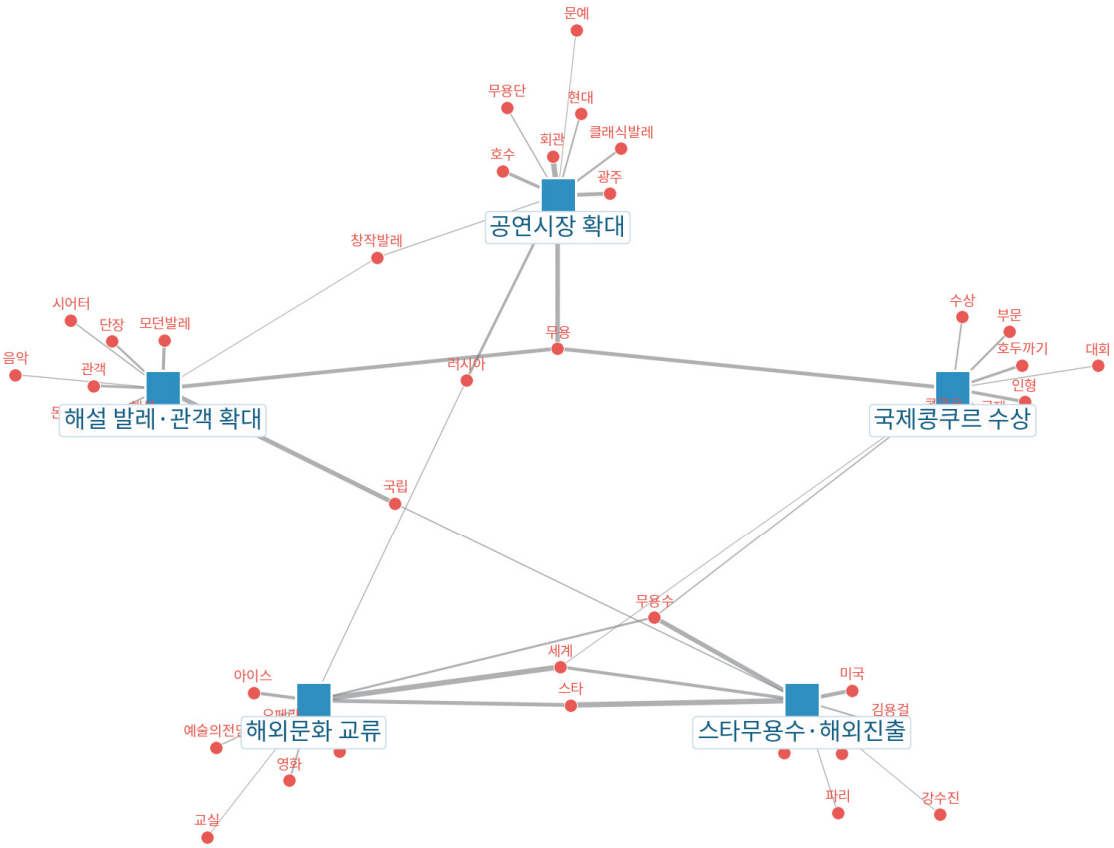


그림 2. 토픽 모델링 시각화 산출물

제2기에 나타난 토픽은 〈그림 2〉과 같다. 총 1,958건의 기사에서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별 점유율은 '공연시장 확대'가 30.47%로 가장 높았으며, '해설 발레·관객 확대' 26.15%, '해외문화 교류' 15.79%, '스타무용수, 해외진출' 14.71%, '국제콩쿠르 수상' 12.88% 순으로 나타났다.

제2기에는 '공연시장 확대'가 30.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해설 발레·관객 확대'가 26.15%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제1기에 형성된 제도적 기반이 전문 발레단의 공연 제작과 관객 확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국립', '단장', '해설', '관객', '시어터' 등의 키워드는 발레단 중심의 제작 및 운영 체계가 정착되고 공연의 대중적 접근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무용이 한국의 문화교류와 교육, 문화의 향유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보고(이예슬, 박종화, 2020)와 국내외 발레단의 공연 및 창단 관련 보도가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보고(이윤경, 김태연, 2024) 등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공연 성과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그간 유래가 없던 발레공연과 차별화된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가 높은 관심 속에 매진된 바 있고(김갑식, 2001.05.01.), 2002년 '지젤'은 5회 공연 평균 1,461명의 관객과 73%의 유료 객석점유율로 대폭 상승을 기록하였다(황태훈, 2002.04.16.). 이는 발레가 소수의 전문예술을 넘어 다수의 대중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공연예술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해설을 결합한 발레가 독립된 토픽으로 나타난 점은 관객 확대가 단순히 공연 공급을 늘리는 방식만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발레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의 이해를 지원하고 관람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와 연관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발레의 사회적 확장이 전문예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은선(2020)은 성인발레 참여자의 문화소비와 아마추어 공연, 콩쿠르 등 예술 생산 활동을 분석하면서 발레 대중화가 관람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예술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발레 향유가 관람 중심에서 참여와 문화생산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장기적 변화 해석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기의 스타무용수, 해외진출 토픽에서 강수진, 김용걸, 김지영 등이 '파리', '미국', '세계', '스타'와 함께 나타난 것은 한국 무용수의 해외 활동과 국제적 성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1998년 파리 국제발레콩쿠르에서 김지영과 김용걸이 2인무 부문 1위를 차지한 이후 국제콩쿠르 입상이 이어졌으며(김갑식, 2001.05.01.), 스타 무용수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확대되었다(이용원, 2004.12.30.). 이러한 기사들로부터 국제적 성취와 무용수 개인의 인지도로 연결되어 스타 무용수가 발레의 사회적 관심을 확장하는 주체로 등장했음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제2기는 전문 발레단과 공연시장의 성장을 기반으로 대중화와 세계화가 본격화된 전환기로 볼 수 있다. 한국 발레계에 관객과 흥행, 스타 무용수와 국제적 성취가 주요 가치로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제3기의 관객층 확대와 다양한 참여 방식으로 이어져 간다.

3) 제3기(2006~2015년) 토픽모델링

제3기에 나타난 토픽은 〈그림 3〉과 같다. 총 4,746건의 기사에서 6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토픽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제콩쿠르, 교류'가 24.45%로 가장 높았으며, '공연·관객 확대' 23.75%, '스타무용수, 국제활동' 19.25%, '가족, 어린이 발레' 11.83%, '발레, 미디어 확장' 11.08%, '신체관리' 9.64% 순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제3기(2006~2015년) 토픽-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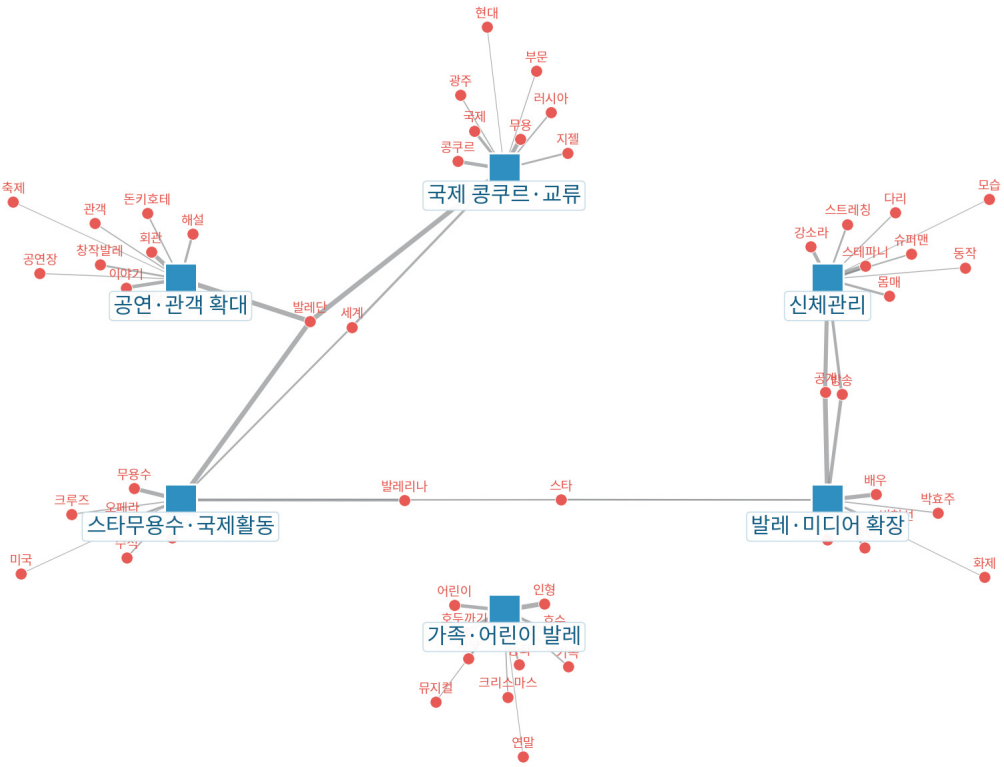


그림 3. 토픽 모델링 시각화 산출물

제3기에는 '국제 콩쿠르, 교류'(24.45%)와 '공연, 관객 확대'(23.7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스타무용수의 국제활동과 가족, 어린이 발레, 미디어 및 신체관리 관련 담론도 함께 나타났다. '가족', '어린이', '해설', '관객'은 발레의 향유층이 다양한 세대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며, '방송', '배우', '몸매', '스트레칭', '동작' 등은 발레가 공연예술을 넘어 신체 관리와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발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지도(강승희, 2010)와 예술적, 운동적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의 등장(강아록, 2019)과도 연결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발레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일반 참여자가 새로운 향유 주체로 등장하였다. 신선영과 윤태진(2016)은 고급예술로 인식되던 발레가 2000년대 이후 일반인의 취미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참여자들이 발레를 신체관리와 여가뿐 아니라 예술적 실천으로 경험한다고 분석하였다. 성인발레 참여가 신체관리와 정서적 만족, 삶의 의미 형성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연구(유은혜, 윤혜선, 2018; 이진희, 이상희, 허진무, 2020)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한편 국제 교류의 확대와 함께 창작발레의 해외 진출도 지속되었다. 2015년 창단 20주년을 맞은 서울발레시어터는 약 100편의 창작발레를 제작하고 2001년 국내 최초로 창작발레를 해외에 수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발레 대중화와 창작발레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고재연, 2015.04.08.). 이는 제3기 후반에 대중화, 창작, 국제화가 서로 연결된 발레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3기는 발레의 사회적 주체가 전문 무용수와 관객에서 일반 참여자로 확대되고, 발레가 공연예술에서 신체관리, 여가, 대중문화와 결합된 생활문화로 확장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창작발레의 국제적 확산이 지속되면서 발레의 사회적 영역 역시

예술계, 대중 참여뿐 아니라 여가, 건강, 문화 등 다층적이고 세부적으로 확대되었다. 제2기의 관객 개발이 공연을 더 잘 보고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이었다면, 제3기에는 발레를 직접 배우고 신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이 담론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이후 제4기의 지역문화 프로그램과 온라인 참여 환경으로 발레가 확장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보여준다.

4) 제4기(2016~2025년) 토픽모델링

제4기에는 총 5,623건의 기사에서 8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별 점유율은 '지역, 공공문화'가 24.15%로 가장 높았으며, '발레 레퍼토리' 16.62%, '국제적 한국무용수' 13.79%, '지역축제, 콩쿠르' 11.77%, '드라마, 대중문화' 10.45%, '발레리나 이미지' 10.01%, '코로나, 공연서비스' 8.26%, '국제콩쿠르·성과' 4.95% 순으로 나타났다.

제4기(2016~2025년) 토픽-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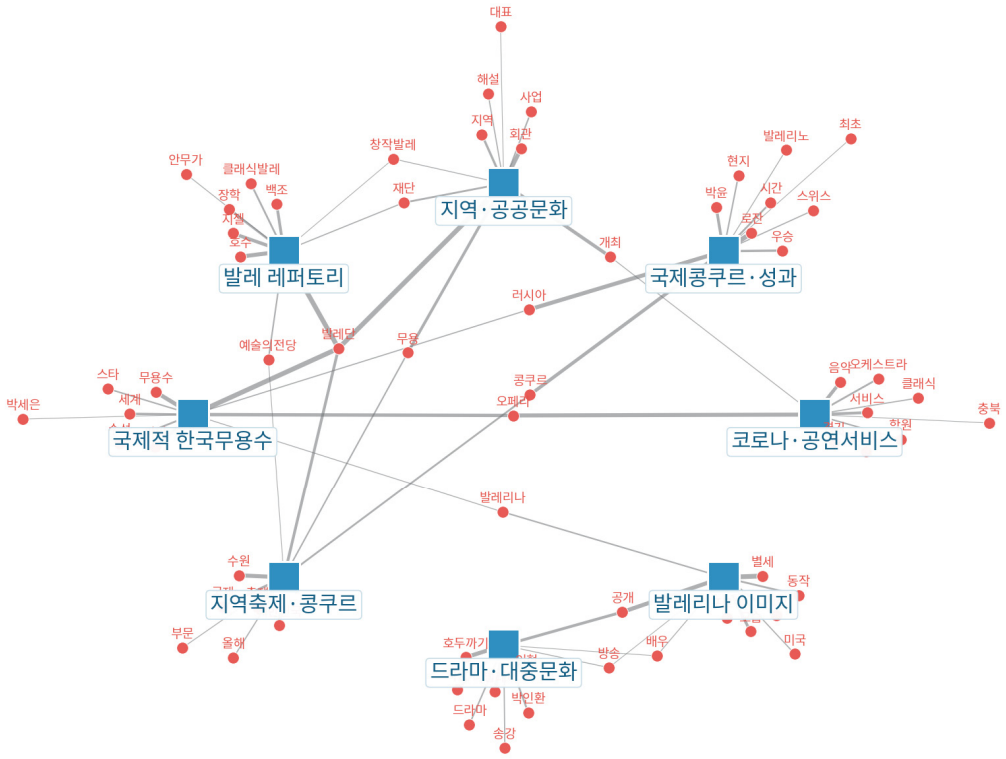


그림 4. 토픽 모델링 시각화 산출물

제4기에는 '지역', '재단', '사업', '회관' 등의 키워드가 두드러져 발레의 활동 영역이 전문발레단을 넘어 지역 문화재단과 공공문화사업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 '서비스' 등의 키워드는 발레의 생산과 향유 방식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레에 대한 새로운 관객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무용공연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조남규, 김혜림, 2022; 최재일, 최영철, 2021; 장유정, 2023)와도 연결된다. 특히 코로나19는 무용계에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2020년 국립발레단은 전공자뿐 아니라 취미발레인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홈 발레 위드 KNB'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장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병호, 2020.09.22.), 디지털 혁신과 함께 사회적 공공문화의 책임을 수행한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발레가 극장과 연습실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시기나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나빌레라', '박인환', '드라마', '배우' 등의 키워드는 그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발레가 중장년, 고령층의 삶과 성장을 다루는 대중문화의 소재로 활용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중장년층의 발레 참여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는 정윤지, 최명경과 이준성(2022)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제3기에서 나타난 일반인의 발레 참여가 제4기에는 디지털 매체의 인용과 함께 다양한 세대 및 수준을 아우르는 형태로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4기는 지역, 공공문화의 확대, 디지털 전환, 향유 세대의 다양화가 함께 나타난 시기로서, 전문예술의 국제화와 문화 향유의 공공성이 병행되는 다층적 확장기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발레의 향유 공간이 극장에서 온라인과 일상으로 확장되면서 발레의 사회적 접근성과 활용 범위도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시기별 발레에 관한 사회적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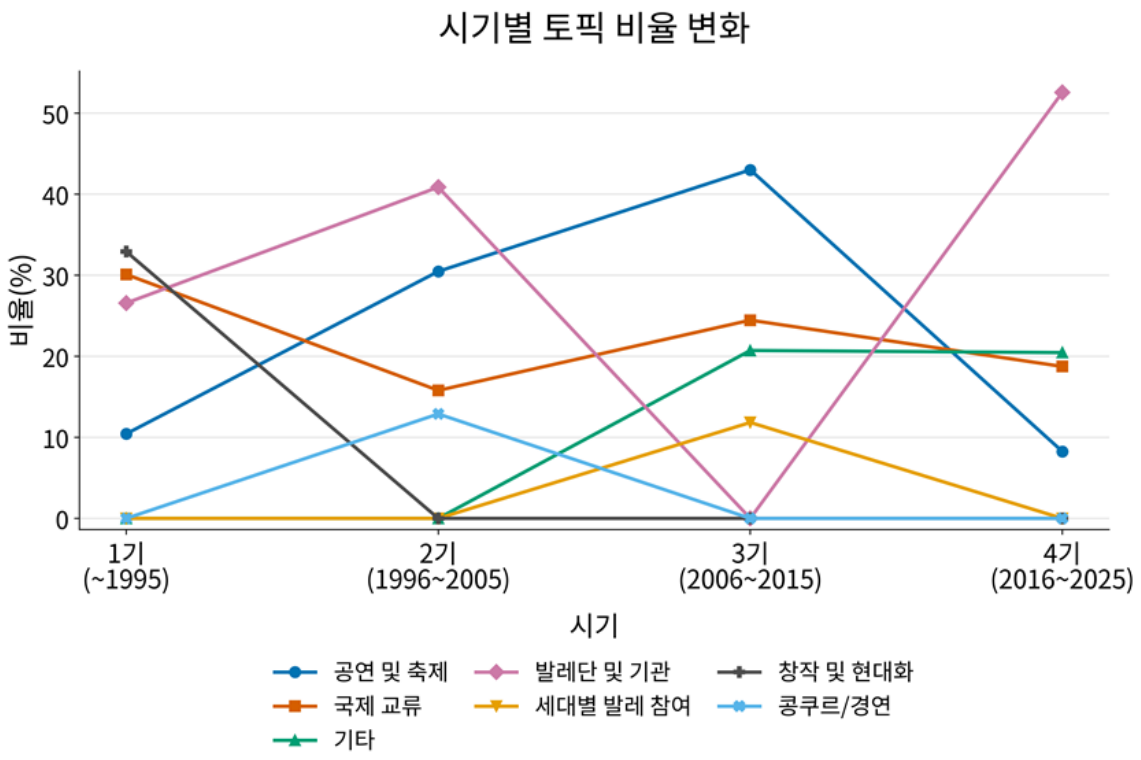


그림 5. 시기별 토픽 비율 변화

시기별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발레 관련 미디어 담론은 각 시기에 따라 중심축을 달리하며 확장 되어왔다. 제1기에는 해외 발레의 수용과 국내 창작, 교육, 단체의 기반 형성이 동시에 나타났고, 제2기에는 전문 발레단과 공연시장의 성장, 관객 개발 및 한국 무용수의 해외 활동이 주요하게 부각되었다. 제3기에는 가족과 어린이를 포함한 관객층의 확대와 성인발레, 신체관리, 방송, 대중문화 관련 내용이 등장하면서 발레를 향유하는 방식이 관람에서 학습과 직접 참여로 넓어졌다. 이어 제4기에는 지역 문화재단과 공공사업, 디지털 환경, 중장년층을 포함한 세대

확장, 한국 무용수의 국제적 성과가 함께 나타나 발레의 사회적 접점이 더욱 다층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용 관련 미디어 담론이 시대적 환경과 향유 방식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된다는 선행연구와 연결된다. 조하나(2022)는 관련 보도에서 한국전통무용의 사회적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조윤정(2024)은 무용공연 자료를 통해 공연 경향과 사회적 관심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한국전통무용이나 무용공연 전반을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발레를 독립적인 장르로 설정하여 장기간의 뉴스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발레의 사회적 의미와 국제적 위치가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했는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발레의 미디어 담론은 해외 발레의 수용과 국내 기반 형성에서 전문단체와 공연시장의 성장, 관객 및 참여자의 확대, 지역·디지털 영역으로의 확장, 한국 무용수의 국제적 성취로 변화해 왔다. 이는 한국 발레가 예술성, 전문성을 확대 발전시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취발러' 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대중적 발레라는 사회적 현상에 비추어 향유 주체와 활동 영역의 확장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무용지, 학술논문, 공연자료 및 소셜미디어와 현장 관계자의 경험을 함께 분석하여 미디어 담론과 실제 현장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디어를 분석할 때에는 뉴스가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전제하기보다, 특정 사건과 인물, 정책, 성취를 선택하고 반복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윤정호와 배강원(2025)은 2020~2024년 공연예술 보도에서 팬데믹 초기의 위기 및 지원 프레임이 이후 회복과 산업 성장의 프레임으로 변화했음을 제시하며, 언론이 문화정책과 공연예술 산업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의 토픽은 발레 현장 전체를 직접 측정한 결과라기보다, 각 시기 뉴스 미디어에서 상대적으로 가시화된 발레의 사회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발레의 실제 발전을 단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데 있기보다, 장기간의 뉴스 자료를 통해 한국 발레가 어떤 주제와 가치의 연결 속에서 공적으로 재현되어 왔는지를 시기별로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뉴스 자료와 함께 공연 실적, 관객 통계, 공공지원 사업자료, 발레교육 참여자 경험, 온라인 콘텐츠 반응 등을 결합함으로써 미디어에서 강조된 변화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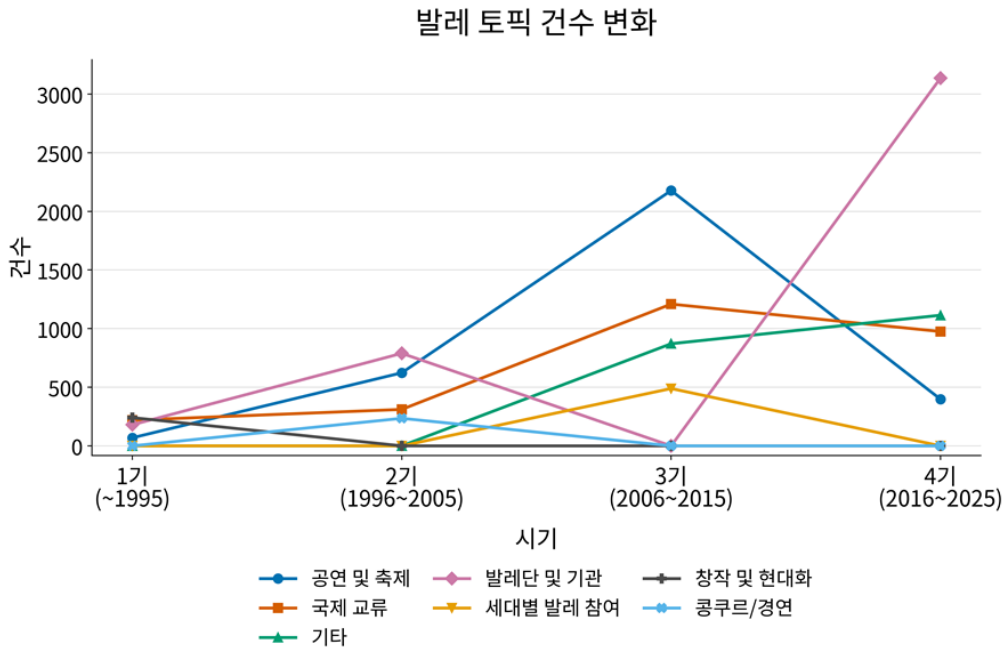


그림 6. 발레 토픽 건수 변화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미디어에 나타난 발레의 사회적 의미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Big KINDS)와 조선일보 기사 아카이브에서 수집된 총 13,036건의 자료를 최종 활용하였으며, 분석 시기는 제1기(1980~1995년), 제2기(1996~2005년), 제3기(2006~2015년), 제4기(2016~2025년)로 구분하였다. 또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법을 적용하여 시기별 토픽 구조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1기에는 창작·기반 형성과 국제 교류, 전문 발레단 형성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제2기에는 공연시장 확대와 해설 발레,관객 확대가 중심적으로 나타났다. 제3기에는 국제 콩쿠르, 교류와 공연, 관객 확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가족,어린이 발레, 미디어, 신체관리 관련 담론이 함께 나타났다. 제4기에는 지역, 공공문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발레 레퍼토리, 한국 무용수의 국제적 활동과 국제콩쿠르 성과, 지역축제, 드라마, 대중문화 등으로 담론이 다양화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발레는 해외 발레의 수용에서 출발하여 국내 창작과 전문 발레단 및 공연 기반을 형성하였고, 이후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지역 문화, 디지털 매체로 영역을 넓히며 대중의 일상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국제 교류의 양상은 초기 해외 작품과 발레단의 국내 유입에서 한국 무용수의 해외 진출과 국제 콩쿠르 수상 등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한국 발레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한국 발레는 해외 발레의 수용에서 국내 전문예술의 성장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세대와 지역 및 수준으로 향유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도 강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발레가 전문예술을 넘어 대중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예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예술 활동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이학준, 허식, 2018), 행복은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Frey , Stutzer, 2002), 발레의 대중적 확장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과 문화적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로 확대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 발레는 전문예술로서의 국제적 경쟁력과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예술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과 함께 세대별 발레교육,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기간의 미디어자료를 통해 한국 발레의 사회적 변화과정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뉴스자료의 특성과 토픽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발레 참여와 행복감 및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발레의 문화예술적,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기여와 의미를 확장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발레에 한정한 본 연구를 한국전통무용 및 무용공연 전반으로 확장하고, 동일한 수집·정제 기준과 분석 기간을 적용하여 장르 간 미디어 담론 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무용계 전반에 장르별로 나타나는 공통적 변화와 고유한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아록(2019). **여성의 취미발레 참여가 여가몰입과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강승희(2010). **발레 대중화를 위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고재연(2015.4.8.). 김인희,제임스 전 “10년 안에 100편 더 만드는 게 꿈…발레 대중화·수출에 역점 두겠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40842221

김갑식(2001.5.1.). 한국발레 힘찬 도약의 날개짓.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eries/article/all/20010501/7683729/1

김남희(2018).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무용 보도의 사회적 표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은진(2021). **성인취미발레행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김태연, 이윤경(202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용 작품분석 연구 동향: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2**(2), 59-71.
김하연, 이해준(202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내 현대무용 관련 연구 및 뉴스보도 경향 비교분석: 트렌드 변화 중심으로. **한국무용과학회지, 37**(3), 49-65.
남수정(2005). **한국 주요 신문의 무용기사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남정미(2026.1.5.). 손녀딸도 할머니도 토슈즈 신었다.....일상 파고든 '취발러'.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6/01/03/JJHUWVIMQVEJRMKDSUPE6DKMSY/
박가영(2026.2.8.). 염다연을 비롯한 한국 발레 무용수 5명이 제54회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코리아헤럴드.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672090?ref=naver
박은혜(2018). **한국사회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종화(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태권도 연구 의미연결망 분석. **국기원 태권도연구, 10**(4), 301-316.
박효선(2024). **한국 발레무용수의 글로벌 성장요인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백지혜(2025). 한·러 발레 문화교류가 한국 발레에 미친 영향: 1988~1998년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24**(4), 139-157.
손재현(2017).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의 인식변화. **한국무용연구, 35**(4), 205-227.
손정아, 하웅용(2017). 부르디외의 장이론으로 본 서울발레시어터의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22**(1), 107-122.
신선영, 윤태진(2016). 여가로서의 발레, 예술로서의 발레: 취미발레 여성수강생들의 예술실천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1**(1), 71-114.
유은혜, 윤혜선(2018). 성인발레학습자의 경험실태 연구. **예술교육연구, 16**(1), 37-52.
이예슬(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무용 경향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예슬, 박종화(2020).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무용의 정책적 기능 및 현황 분석.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8**(1), 67-81.
이예슬, 한혜원, 연은정(2021).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생활무용 연구의 지식구조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21**(3), 41-50.
이용건, 최형철(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공연관람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365-374.
이용원(2004.12.30.). 발레리노 이원국.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2004/12/30/20041230031002
이윤경, 김태연(2024).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언론의 무용 공연 보도 특성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41**(2), 21-34.
이정민(2017). 무용학 지식 정보의 의미 관계 분석. **한국예술연구, 16**, 215-237.
이은선(2020). 성인 발레 참여자의 예술 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9**(6), 853-862.
이진희, 이상희, 허진무(2020). 진지한 여가로서의 성인 발레 참여경험과 삶의 질.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4**(2), 65-88.
윤정호, 배강원(2025). Framing Shifts and Discourse Formation in Performing Arts Reporting: A Text Mining Study of Five Major Korean Newspapers, 2020-2024.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지, 33**(4), 283-296.
이학준, 허식(2018). 행복결정요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참여의 역할. **문화경제연구, 21**(3), 3-30.
이한별(2023).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무용 이슈 분석. **융합과 통섭, 6**(1), 139-150.
임요희(2025.2.10.). 박윤재 우승한 로잔 발레 콩쿠르에 한국이 주목하는 이유. 스카이데일리.
임하린(2026). **성인 취미 발레 참여자를 통한 발레 대중화 양상 및 문화·사회적 의미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장병호(2020.9.22.).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홈트'…23일 유튜브 첫 공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067206625902744
장유정(2023).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무용의 비대면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 변화. **한국무용학회지, 22**(4), 69-77.
정윤지, 최명경, 이준성(2022). 중장년층의 성인 발레 참여 경험과 삶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6**(1), 29-49.
제임스 전, 김지연(2008). 국립발레단의 창단배경 및 한국발레의 성장기: 임성남 재임기간(1973~1992)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회지, 13(3), 15-28.
조남규, 김혜림(2022). 코로나 이후 무용 공연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적 활용: 텍스트 마이닝의 네트워크와 토픽 모델링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9**(4), 21-36.
조윤정(2024). **빅데이터를 적용한 무용공연 트렌드 분석과 사회적 담론.**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조하나(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전통무용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1**(4), 147-159.
최재일, 최영철(2021). 빅데이터를 이용한 무용 트랜드 분석: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비교. **한국체육과학회지, 30**(5), 727-738.
최종환(2023). 국내 스트릿댄스 관련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언론보도 및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1990년-2022년). **실용무용학회지, 1**(1), 3-20.
현보람(2021).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 인식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10(4), 99-111.**
호현지(2018). **발레의상이 현대패션에 미치는 영향: 발레의 로맨틱 튀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홍보영(2024.2.7.). 문화예술패스 등 여가비 부담 완화… 글로벌 문화 강국 추진.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6964
황태훈(2002.4.16.). 국립발레단 꾸준한 투자-대중화 노력…유료관객 '껑충'.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416/7809024/1
Frey, B. S., , Stutzer, A.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402-435.

ABSTRACT

The Analysis of Changes in Topics Related to Korean Ballet in the Media

Taeyeon Kim*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meanings of ballet and their changes over time as represented in Korean news media, focusing on newspaper articles. The dataset consisted of 13,036 ballet-related news articles collected and refined from Big KINDS and the Chosun Ilbo news archive.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Period 1 (up to 1995), Period 2 (1996-2005), Period 3 (2006-2015), and Period 4 (2016-2025). Tokens extracted from article titles and bodies were preprocessed using custom dictionaries of designated terms, synonyms, and exclusion terms, TF-IDF was used during preprocessing to identify and remove overly common terms.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was then applied to the cleaned tokens to identify major topics and keyword distributions across the four periods. The results were visualized through topic-keyword networks.

The findings revealed distinct thematic characteristics across the four periods. Period 1 was characterized by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creative ballet and international exchange, while Period 2 highlighted the expansion of the performance market and ballet audiences. Period 3 emphasized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growth of ballet performances, whereas Period 4 reflected the expansion of ballet into regional communities, public cultural spheres, and popular culture. Overall, media discourse surrounding ballet in Korea has evolved from the reception of foreign ballet and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foundation to the growth of professional ballet companies and the performance market, the international achievements of Korean dancers, and the expansion of ballet participation across generations, regions, and digital platform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meanings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s of ballet in Korea by systematically examining a substantial corpus of news articles accumulated over an extended period. The findings provide foundational evidence for exploring future direction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ballet.

Key words : Ballet, Big Data, Topic Modeling, Media Discourse, Social Change

논문투고일: 2026.08.31
논문심사일: 2026.10.08
심사완료일: 2026.10.20

* lecturer, Department of Dance, Hanyang University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